

휴-口으로부터 칸트까지 因果問題의發展(續)

朴東一

B. 칸트에及한휴-口의影響

吾人은칸트의因果問題를論하기前에 먼저휴-口의思想이칸트에如何한影響을 주었는가 다시칸트는휴-口으로붙어如何한暗示를받았는가를 簡單히論하는것은 칸트의因果問題를論하는데非常히意義잇는것이리라고 思料하는바이고 또 칸트가휴-口으로붙어인선示唆를입은時代는 批判前期로붙어임으로勿論多少批判前期의因果問題에도關聯되라라고思料한다. 칸트는批判哲學을完成하기前까지적이나많은哲學者들의思想의影響과 또는學說의暗示를받은것은말할것도없는사실이지마는 其中에도휴-口으로붙어의影響이며衝動이며暗示며는實로多大하다고할수있다. 吾人은칸트의著作더군다나 『形而上學序說』 『純粹理性批判』 『實踐理性批判』 등에있어서칸트가각금각금휴-口의學說을引論하고 또는思想을非難한것을본다. 就中에도因果問題의思想에對하여 그러함으로써因果問題를論하는吾人은이影響을等閑에附할수없는同時에進하여야는 많이論及하여야만될것이다. 卽此影響을論하는것은 곳휴-口으로붙어칸트에의因果思想의過渡를論하는것임으로 여기에余가此問題를論述하라고表題로한것이다.

칸트가휴-口을回想함에依하여獨斷的假睡로붙어잠을깁事實은발서序論에서말한것인데 이境遇에在한回想은 다못휴-口에對한回想뿐은아니다. 그것은實로저휴-口의忠告요批判暗示다. 卽現實的原因概念의客觀妥當性에關한휴-口의論爭이드되여칸트로하야금獨斷的假睡로붙어動搖하게하고나아가서는批判의大野에다거름을내되되게한것이다. 그래서獨斷的哲學者는經驗又是經驗의彼岸에存在하는事物에就하야思惟할적에 勿論此客觀的妥當性을迷妄가운데에서要求할수밖에없는狀態에있었다. 그러나칸트는휴-口을回想함에依하여 또한휴-口의暗示에依하여只今까지꾸고있던甘夢으로붙어 잠을깁것이다. 그럼으로칸트는스사로分明히 이獨斷으로붙어覺醒하였다는事實, 휴-口으로붙어影響과暗示를받었다는事實, 다시純粹理性批判이휴-口의疑惑設에依하여惹起되었다는事實을形而上學序說, 純粹理性批判, 實踐理性批判에서論述하였다.

只今吾人이暫間칸트의思想發展을探究하여보면吾人은感嘆하지안을수없다. 칸

트는 普通의境遇에는 그만 硬化해버릴만한 高齡에 達해서도 오히려 思索을 孜孜營營히 繼續하였다. 卽 칸트의 思惟活動은 老猶不止하는 眞理에 對한 不休의 그우에 늘 새 方向을 打開하는 一種의 演劇이었다. 칸트는 千七百七十年以後卽 四十六歲時에 卽 우 常恒히나 아갈만한 方向을 잡은 것을 보드라도 可히 짐작할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此時로 불어 漸次 安定狀態에 있을 機會를 얻었으므로 卽 한 永續的 思想의 大建築을 始工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時期以前은 어떠한가. 大體로 칸트는 無關心으로써 自己或은 他人의 見解에 對한 것같이 보인다. 此 無關心時代로 불어 千七百七十年以後에 至하는 칸트의 終焉하기까지의 永久流通하는 思想過程을 區分하면 吾人은 大體로 三分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卽 最高時期를 大體 千七百六十年까지라 하면 그 思想은 獨斷的이고 次時期를 大體 千七百六十年으로 불어 千七百七十年까지라 하면 그 思想의 懷疑的 經驗的이요 最後의 時期를 千七百七十年以後로 불어 의 長久한 生涯로 하여 그 思想은 批判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大體 純粹 理性 批判을 千七百七十年에 在한 研究의 結末로 認定하는 것이다.

이렇기 보아 옴에 칸트가 휴-口的 影響을 받은 것은 大體 懷疑的 思想과 經驗的 思想의 時期入적 불어 버리라 생각된다. 저 『視靈者의 夢』(一七六六)을 보면 그 속에 적힌 記述이 實히 휴-口的 轉向에 對비한 묘아리를 多分히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칸트는 이해에 께이나 큰 躁急으로서 드러 獨斷的 形而上學으로 불어 離脫하고 同時에 또 因果問題로써 다루기 始作한 것이다. 千七百六十年以後에 皮입니츠의 影響으로 불어 吾人의 智識에 在한 先天的 존재의 確實한 承認이 된 것이나 吾人은 이 先天性을 Dissertation(一七七〇)中에서 볼 수가 있다. 卽 이 先天性은 오히려 後日의 體系에 在한 잃기 어려운 要素로서 直觀形式의 新理說을 定立하고 卽 그리하여 此理說은 現象世界와 物自體世界를 連結或은 分離하는 區分性을 先天性에 依賴하는 것이다. 甞아서 設或 此 先天性은 體系的이 아니라 할지라도 眞意味에 있어서의 휴-口的 問題를 認識하고 思惟의 客觀妥當性을 證明할 수가 있다. 只 今이야 칸트는 이때까지의 境遇에 依하여는 휴-口的 問題는 解決할 수가 없다는 事實 휴-口은 物自體와 現象과의 結合을 認識하라는 獨斷的 哲學에 對하여 因果結合의 概念을 全然 눈가림으로 생각하였다는 事實을 洞察하였다. 이 境遇에 있어서 칸트의 對하여는 先天的 概念은 經驗의 可能性의 根據로서의 經驗의 對象에 對하여 客觀적으로 妥當하다는 길 보여진 것이다. 卽 確實히 칸트는 千七百七十年頃에는 휴-口的 示唆를 받았다고 確言할 수가 있다.

그렇기 칸트는 自己 本來의 問題를 겨우 千七百七十年으로 불어 以後에 본 것이여서 칸트에 就하여는 純粹 理性 批判理 卽 此 問題의 完成이다. 그래서 또 千七百七十二년에 『純粹 理性 批判』이라는 이름도 보이는데 그것은 卽 先天的 認識의 可能性에 研究를 意味한다. 그럼으로 이 時期에 있어서 먼저 휴-口的 純粹 理性의 權利 攻擊, 그

리하야先天的認識의證明에對한刺戟으로서의칸트의回想은只今充分한實現에到
達하였다고볼수가있다. 依하야此以前の모든先驗의事實은單只序幕일뿐이다.